

北 핵보유국 선언에 美 “비핵화가 1원칙”

김정은 발언 뒤 비핵화 거듭 촉구

핵실험 땀 원유공급 제한 등 압박

미국 정부가 8일(현지시간) 북핵 불용의 확고부동한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를 거듭 촉구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6~7일 이틀에 걸쳐 열린 노동당 7차 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결산)보고회에서 항구적 핵보유국 선언과 동시에 핵-경제 병진노선을 전명한 데 대해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가 미 정부 대북정책의 제1원칙임을 재차 강조했다.

오리 아브라모비치 미 국무부 동아태국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의 질의에 “(김 제1위원장의) 그 발언을 알고 있다”면서 “비핵화에 관한 국제적 약속과 의무 이행에

초점을 맞출 것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브라모비치 대변인은 또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는 북한에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는 동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CVID) 비핵화 원칙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CVID 3원칙을 강조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미 정부는 그동안 줄기차게 ‘비핵화 없이는 어떤 대화나 타협도 없다’는 경고 메시지를 북한 정권에 보내왔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진지한 태도를 보이면 우리도 긴장 완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난달 독일 하노버 발언이나 “우리는 북한 정권에 반영된 미

래와 안보(체제보장)로 이어지는 길이 열려 있음을 분명히 밝혀왔다. 그러나 그 길의 관문은 비핵화가 전제”라는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최근 토론 회 발언 모두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미 정부는 현재 우리 정부와 마찬가지로 김 제1위원장의 이번 발언을 핵포기 절대 불가 선언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앞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와 철저한 공조 하에 북한에 대한 압박의 고삐를 더욱 바짝 쥘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모든 핵 활동 동결,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행 등 ‘선(先)비핵화-후(後)대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북한에 실질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여러 조치를 추가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적으로 올해 초 4차 핵실험과 미사

일 도발에 맞서 유엔 제재와 별개로 이미 양자 제재에도 들어간 미국은 북한이 5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강행하면 중국의 반대로 직접 안보리 결의안에서 빠진 대북 제재 조치, 특히 대북 원유 공급 제한 또는 중단과 함께,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 은행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 등도 광범위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사실상 원유공급을 비롯해 북한의 생명줄을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이것이 실행될 경우 북한은 실질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다.

미 정부의 압박 속에 안보리도 현재 모든 유엔 회원국에 대해 지난달 초 채택한 역대 최강경 대북제재 결의 2270호의 구체적인 조치 결과를 이달 말까지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대북 제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61 축나라의 맹장 장비

장비(張飛, ?~221)는 유비 관우와 함께 도원결의를 맺고 한 왕실의 부활을 위해 노력한 축나라의 맹장이자, 자는 익덕(益德)이며 탁군 출신이다.

그는 유비를 따라 환건적의 난을 진압하는 전투에 여러번 참여했다. 여포를 치는 전투에 공을 세워 충량장에 임명되었다. 유비가 조조의 공격을 피해 유표가 다스리는 형주로 내려가자 관우와 함께 유비를 보좌했다. 유비가 삼고초려의 예를 다해 제갈량을 참모로 영입한 후에는 관우, 조자룡 등과 유비군의 한 축을 담당했다. 조조는 유표 사후 형주를 점령하고 강남으로 도주하는 유비를 뒤쫓았다. 형주 장판교에서 조조군과 유비군이 맞붙었다. 그 유명한 장판교 싸움이다. 장비는 냇물을 점거하여 다리를 끊고 눈을 부릅뜨며 말했다. “나는 장의대이다. 나와 함께 죽음을 결정 지으며 싸울 수 있겠는가?” 조조군은 감히 가까이 다가

고, 매일 병사들을 채찍질하니 이는 화를 부르는 것이다”라며 충고하였다. 관우 손권에게 죽임을 당하자 유비는 이를 전투를 일으켰다. 그는 병사 만명을 인솔하던 중 부하 장달과 범강에게 살해당했다.

장판교 싸움은 보기 드문 영웅적 기개를 발휘하여 조조군의 추격을 차단함으로써 유비의 목숨을 보호한 쾌거다. 삼국지 속서 「장비전」에서 이 장면은 불과 500여자에 지나지 않지만 그의 용기를 선명히 부각시켜 후세 사람들의 심금을 흔들어놓았다. 그러나 조조의 추격을 격정해 다리를 끊어버리는 실책을 범했다. 유비는 “조조는 폐가 많은 사람이다. 만약 다리를 끊지 않았다면, 그는 매복이 두려워 감히 진격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 다리를 끊었다는 것은 우리가 군사기 없이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니 추격을 해 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예상대로 조조군은 유비를 다시 추격했다. 지략이 밝지 못한 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장서 용맹 떨친 삼국시대 영웅

는 자가 없었다고 한다. 유비는 가까이 접근하여 죽음을 면하였다.

적벽대전에서 유비가 승리한 이후 그는 의도 태수와 신정후에 봉해졌다. 유비가 익주의 유장을 치려하자 강주에서 유장의 부하인 파군 태수 엄안을 무찔러 사로잡았다. 엄안을 꾸짖어 말하기를 “대군이 이르렀는데 어찌하여 항복하지 않고 감히 저항하느냐” 엄안은 “우리 지방에는 머리를 잘리는 장군은 있으나 항복하는 장군은 없다”고 응대했다. 그는 엄안의 용맹에 감복하여 반격으로 삼았다.

조조군과 유비군은 한중에서 다시 맞붙었다. 조조는 하우연과 장합으로 하여금 한중을 방어토록 했는데 장합과 장비는 오십여일 동안 서로 대치하게 되었다. 그는 병사 만여명을 동원해 장합군을 무찔렀다. 유비는 한중왕이 되었고 그를 우장군으로 삼았다.

221년 거기장군이 되고 서향후에 봉해졌다. 장비의 용맹은 관우와 쌍벽을 이루었다. 위나라의 모신 정욱은 장비가 일말의 용맹을 갖추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그는 일반 병사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다. 유비는 늘 이점을 우려하여 “그대는 형벌에 따라 사람을 죽이는 것이 지나치

아전마초(夜戰馬超)는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장면으로 장비와 마초가 햇불을 켜놓고 호호상박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일화다. 의주의 유장이 유비의 공격을 받아 한중의 장로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장로는 귀순한 맹장 마초를 보내 대결케 한다. 범같은 두 장수가 맞붙어 200여 합 넘게 겨루지만 승패가 가려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햇불로 대낮처럼 밝히고 싸우지만 무승부로 끝났다. 장비의 위풍을 보여주는 명장면이다.

그러나 정사에는 유장이 장로에게 구원병을 요청한 적이 없고 장로 또한 파병을 한 적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의 용맹을 부각시킨 픽션일 뿐이다.

장비가 엄안을 생포해 자신의 편으로 만든 내용은 장비가 지혜를 갖춘 인물임을 보여주는 일화다. 싸움에 능한 장비의 영웅적 풍모에 더해 그의 지모와 도량이 넓음을 보여주고 있다. 역사학자 모종강은 “익덕의 평생에는 몇가지 통쾌한 일이 있다. 장판교싸움 등이 그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용맹은 그 어느 것도 엄안을 생포하고 설득한 지혜만큼 못하다”고 평하고 있다.

“김정은, 똥똥하고 예측 불가”

‘불경 보도’ BBC 취재진 추방



북한이 평양을 방문한 BBC 루퍼드 왕필드-헤이스(49·사진) 기자를 구금하고 추방했다고 BBC 방송과 현지에서 있는 기자 등이 9일 밝혔다.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 취재를 위해 평양에 있는 월 리플리 CNN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관련한 불경스러운(disrespectful)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왕필드-헤이스 기자를 구금하고 추방했다”고 전했다.

BBC는 왕필드-헤이스 기자가 지난 6일 구금돼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진술서에 서명을 했다고 확인했다. BBC는 왕필드-헤이스 기자가 현재 카메라 기자 매수 고다드, 프로듀서 마리아 번과 함께 공방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왕필드-헤이스 기자는 도쿄 주재 특파원으로 6일 당 대회가 개막하기 전 국제평화화재단(IPF)과 함께 노벨상 수상자 3명이 북한 대학과의 과학기술 교류를 위해 방북했을 때부터 평양을 방문했다.

당 대회 취재를 위해 북한을 방문해 평양에 남아 있는 스티븐 에번스 BBC 기자는 북한 지도부가 평양의 삶을 조명하는 보도에 불만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기사에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은이 숨지고 나서 그의 똥똥하고 예측할 수 없는 아들 김정은이 그의 자리를 대신했다”고 썼다. 그는 이달 4일 김일성대학 내부를 촬영하는 도중 북측 관계자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모습을 포함한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외신 기자들이 9일 평양 시내 한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제7차 노동당 대회 중계방송을 취재·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힐러리 ‘킹 메이커’ 오바마

트럼프 공격 선봉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사실상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만물기의 선봉에 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권 말년에 50%를 넘는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가 민주당의 정권 연장을 위한 킹 메이커를 자처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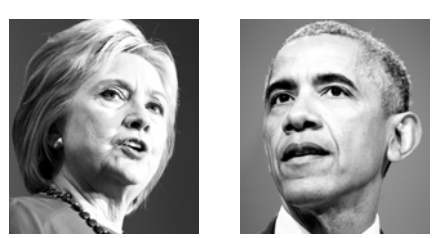
오바마 대통령은 8년 집권을 불과 6개월밖에 남겨놓지 않았지만 로널드 레이건의 이란 콘트라 스캔들이나 빌 클린턴의 성추문 스캔들 탄핵, 조지 W. 부시의 이라크 전쟁 등 정권의 기반을 흔드는 초대형 스캔들에 얽여 듣지 않았다.

오하리 정권 후반부로 접어들며 경제 호전에 더해 이란 핵합의나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 등 역사적 정권 업적을 쌓아가며 뒷심을 발휘했다. CNN/ORC가 지난 3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51%로 나타났다.

지난 2월 한달 전에 비해 7%포인트 상승한 이래 이 기조를 지속해온 것. 2012년 대선 이후 가장 오랜 기간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지도는 바탕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트럼프 때리기로 킹 메이커 행보의 시동을 이미 걸었다.

그는 지난 6일 백악관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지금도 중요한 시기



힐러리 전 장관 오바마 대통령

이며 미국 대통령직은 정말 중요한 자리”라며 “대통령직은 오락이 아니며 얼리티 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리얼리티쇼 진행자 출신인 그에게 “대통령 부처격자”라며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유세는 클린턴 전 관에게 힘이 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2차례 승리하는데 절대적 지지기반이었던 젊은층과 히스패닉, 흑인 등의 지지는 클린턴 전 장관에게도 필수적이다. /연합뉴스

<p>4층 상가 원룸 매매 전대정문 모아 A.P.T 후문 코너자리</p> <p>1층 (커피숍 입점)</p> <p>2층~3층 (고급 룸 8개) 4층 (주택)을 주택 (방 3개, 화장실 2개, 내부 깔끔한 화이트, 다용도실)</p> <p>임대완료 정남향 코너자리</p> <p>■ 월수익 → 480만 ■ 매가 → 6억 8천만 (용 1억5천 보 1억5천) (실투자 3억 8천)</p> <p>010-6670-9800</p>	<p>첨단지구 8층 상가, 건물매매 광주 최초 (연구소 전문건물)</p> <p>(오피스텔 및 상가 건물)</p> <p>1층 (상가) 120평 (정원,잔디밭 사용가능) 2층~7층 (고급 오피스텔 룸) - 56개 8층 41평 (주택겸사무실) (옥상 풀 사용가능, 정원, 경치 좋음)</p> <p>■ 감정가 (분할 시) → 56억 ■ 용자 → 26억(최대 31억 가능) ■ 보 3억 월 3,000만 ◆ 매가 38억</p> <p>010-7384-7800</p>	<p>근린상가 오피스텔 매매 소액투자 가능, 3천만~2억</p> <p>■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 6층 (45평) 을수리 천변로 전망 좋음 - 보증금-1,000만, 월세 60만 (용 5천) ■ 매가 1억 1천만</p> <p>■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 6층 (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역 - 보증금 500만, 월세 45만 (용 1천 6백만) ■ 매가 8천 500만</p> <p>■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역 - 보증금 500만, 월 42만 (용 2천4백만) ■ 매가 7천 500만</p> <p>010-6834-4800</p>	<p>법률경매 (특수물건 추천)</p> <p>■ 북구 삼각동 (6층 상가건물) - (토 1183평, 건 6780평) - 요양병원 추천, 주차 1만, 6차선 도로 접 - 삼각초등학교 부근, 아파트 단지 ■ 감정가 170억 - 최자가 170억</p> <p>■ 동구 동명동 - (토21평,건608평) (근린시설) - 1층 (소매점) 2층~6층 (오피스텔 룸) - 동명 교회 북측 인근, 4차선 도로접 ■ 감정가 19억 5천 - 최자가 13억 1천</p> <p>■ 서구 양동 (숙박 시설) - (토 577평, 건 424평) - 1층 (주차장기운대) 2층~5층 (숙박시설,40개) - 광주은행 동측 인근, 약 10m 도로접 ■ 감정가 10억 8천 - 최자가 4억 8천</p> <p>■ 서구 화정동 (6층 건물 나이트) - (토 800평, 건 2,567평) - 광천 터미널 뒤편 위치 / 현 나이트운영중 - (나이트 직영, 터미널 부근 투자 가치 추천) ■ 감정가 130억 - 최자가 49억 7천</p> <p>010-6832-9700</p>	<p>경매교육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p> <p>실전 교육 듣고 바로 수익창출 가능</p> <p>■ 매주 수요일 (오전)</p> <p>■ 일일부위 일대, 매매, 개발/재개발 (원스톱 강의)</p> <p>☆ 경매 실전 교육 ☆</p> <p>■ 바로 실전으로 수익창출 하실분 !! ■ 특수물건, 유채권, 가정법원, 경매입찰, 등 ■ 실제 경험 가장 중요한 실무교육 합니다.</p> <p>(주)대신경매</p> <p>직원구합니다.</p> <p>부동산, 경매 배우실분. 부동산 자격증인원분 부동산 경매 관련 실무교육 가득채워 알려드립니다.</p>
---	--	--	---	--